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인천시당(국민의힘) 입장

2020. 12. 29.(화)

■ 요청기관 :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 Tel : 032-433-1388 / 이메일 : sungil79@naver.com

■ 국민의힘 인천시당 입장

- 요 점 :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 내년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음. 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학적 발상임.
- 김수삼 김해공항검증위원장은 가덕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 ‘가덕도신공항타당성연구용역비 20억원’ 을 반영했음. 이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 사실화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교묘한 책략임.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시 밀양과 가덕도로 나누어 영남 지역간 갈등을 조장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것임.
-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공항설계분야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큰 점수차로 3위를 했으며, 2위가 밀양이었음. 이 결과 동남권신공항은 1위를 차지한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정이 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영남지역을 분열시키고, 선거승리를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신공항 이슈를 악용하는 것임.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대시설을 포함 수십조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게다가 운영에 있어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한민국의 국제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공항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음. 공항건설과 항공산업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김해 신공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찾아보지 않은 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감과 오만 속에서 추진하는 것임.
-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치열하게 허브 공항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과 항공산업의 비중이 큰 인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항공산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함.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인천공항과 인천시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함.